

“국화로서의 무궁화를 비판한다”…『두 얼굴의 무궁화』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무궁화는 과연 대한민국의 국화(國花)가 될 자격이 있는가” 구한말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역시 되어 온 꽃인 ‘무궁화’를 두고 『두 얼굴의 무궁화』 저자 강효백 법무대학원 교수는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많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자생종 꽃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근본도 불분명한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화로 지정했는지를 고찰했다”고 말한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강 교수로부터 직접 들어보았다.

국민 모두가 사랑한다고 알려진 꽃, 무궁화. 대한민국의 5대 국가 상징 중 무려 세 가지(국가·국화·국장)에 자리매김한 무궁화는 한국 정신의 6할을 지배하다시피 하는 꽃이다. 이런 무궁화를 말 그대로 ‘저격’하는 책이 있다. 6월 말 출판된 『두 얼굴의 무궁화』다. 저자인 강 교수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로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을 역사·문화·자연과학적 관점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정리했다.

역사성 못 갖춘 무궁화 “민족 고유 꽃이라는 단서 없어”

강 교수는 여러 사료들을 통해 무궁화가 국화로서의 요건 중 하나인 ‘역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민족의 역사 속에서 무궁화는 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제왕운기(帝王韻紀)』,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한국의 6대 대표 사서 중 무궁화에 대한 언급은 『조선왕조실록』에서 단 한번, 그것도 ‘단명’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단한 글자만 나온다고 설명한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강 교수는 조선시대 3대 시조집인 『청구영언(淸丘永言)』의 시조 580수, 해동가요 883수, 가곡원류 856수를 비롯해 고려 중엽부터 구한말까지의 옛시조 3,355수에서 언급되는 꽃은 총 37종에 달하지만 무궁화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민속 문학 중 무궁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시(漢詩) 뿐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고려시대 457년간 무궁화가 등장하는 시를 읊은 것은 최충(崔沖), 이인로(李仁老), 이규보(李奎報), 이



제현(李齊賢) 모두 네 사람에 불과하며, 이때 무궁화를 소재로 창작된 한시는 총 5수에 불과하다. 조선 시대 한시를 둘러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왕조 505년 동안 무궁화를 소재로 한시를 창작한 인물은 윤선도(尹善道), 정약용(丁若鏞), 서거정(徐居正) 등 열 사람이 채 되지 않는다. 민족 문학에서도 무궁화 꽃은 피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요지다.

뼈아픈 깨달음의 연속 “어린 시절부터 시작돼”

음악 속에선 무궁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 강 교수는 판소리 외 가장 국악의 가사를 집대성한 『창악집성(唱樂集成)』과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을 비롯한 12마당의 판소리 곡을 살펴보았으나, 무궁화가 언급된 요소는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 문화방송의 『한국 민요대전』 음반자료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민요 2,585곡 중에서도 무궁화의 흔적은 없다고 말한다. 서예에서도 구한말 이전 한반도의 시공에서 무궁화를 뜻하는 ‘근(槿)’자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으며, 미술품과 문화재, 유물은 물론 골동품에서도 무궁화는커녕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다.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도 무궁화가 우리 민족 고유의 꽃이라고 볼 만한 단서는 없다는 것이다.

그가 무궁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떠올린 한 가지 의문에서부터다. 강 교수는 “초등학생 시절 문득 무궁화가 ‘육일기(旭日旗)’와 닮았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무궁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한 그는 시조(時調)를 공부하며 다시 한번 무궁화에 주목했다고 한다. 강 교수는 “대학에 다닐 때 시조에 빠져 우리나라의 여러 시조를 공부했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시조 중 무궁화를 소재로 삼은 시조가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다”며 “이때부터 국화로서의 무궁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비로소 무궁화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폭발했다.

강 교수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야생 무궁화가 중국 관동지방에 빼곡히 피어져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며 “이후 인터넷을 통해 무궁화에 대해 조사했는데, 무궁화의 원산지는커녕 재배지 목록에조차 ‘KOREA’가 없었던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강 교수는 다른 나라의 국화와 무궁화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해 ‘국화로서의 무궁화’가 가진 정당성에 대한 연구를 이어오게 됐다.

『두 얼굴의 무궁화』는 깊은 고민과 결정, 그리고 기나긴 연구 끝에 탄생한 책이다. 저자인 강 교수는 500일간의 무궁화 연구 끝에 6월 말에서야 이 책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무궁화를 연구하고 책을 펴내면서 상당한 괴로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연구를 하며 세계 경제 10위 규모의 경제대국, 문화대국이라는 영광에 가려진 우리나라의 민낯을 깨달아 괴로웠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이어져 괴로웠다”고 말했다. 왜 진작 이런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왜 그동안 기존 지식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맹신했는지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서다.

마주했던 두려운 현실 “그럼에도 계속 탐구해야”

강 교수는 무궁화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솔직히 무궁화 연구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무궁화 연구가 그의 전공인 법과도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국훈을 깨버리는 그의 연구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오해받을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무궁화 연구를 끝마치고 책을 집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강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언젠간 세계인들이 무궁화가 ‘국화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얕볼지 생각하니 연구를 멈출 수 없었다”며 “내가 희생양이 되어 욕을 먹

더라도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강 교수의 주장과 근거는 일부만을 부각한 왜곡된 내용이다”라며 『두 얼굴의 무궁화』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강 교수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불쾌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두 얼굴의 무궁화』가 사람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대한민국의 정신’ 중 하나인 무궁화를 깨부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거부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무궁화에 대해 조금만 알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대다. 직접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면 ‘왜 진작 무궁화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나도 그랬다”고 말했다.

국가상징 바로잡으려 노력할 것 “편견 갖지 말고 늘 궁금해 해야”

강 교수는 여생을 잘못된 국가상징을 바로잡는데 바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가 ‘윤봉길 의사의 체포 당시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모든 교과서가 해당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9월 말 역사, 헌법적 관점에서 애국가의 정당성을 틀어보는 책이 출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산 정약용의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를 고려부터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재구성한 『신(新) 아방강역고』를 집필해 국토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고, 『아언각비(雅言覺非)』의 현대판 격인 『신아언각비』를 집필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국문들도 제대로 밝혀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말했다.

강 교수는 저자이기 이전에 학자이자 교육자다. 그는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이비 종교와 같다”고 강조했다. 기존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사이비 종교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편견을 갖지 말고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의 태도로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얼굴의 무궁화』를 읽는 독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